
2022년 혁신위원회 회의자료

2022. 12.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I. 혁신 추진배경

1 경영환경 분석

-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 지속, 정부의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투명성 제고 요구 확대
 - 공공기관 혁신 5대분야: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대국민 소통 및 통합 서비스 제공 강조
- 내국민 및 재외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 요구 지속
- 732만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국가적 자산으로서의 역할 기대 확대,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 추진
 - (22.10.7.)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의

2 2022년 중점 추진방향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정책에 부응, 기관 혁신 전략체계 재정비
 - 혁신 전략체계도 재수립, 공공기관 혁신 5대분야 중심 T/F구성
- 한민족공동체 구현 디지털 플랫폼 기능 강화
 -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TV’ 기능 강화
 - 재단 주요 사업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기여
- ESG 경영(친환경 경영·사회적 가치 경영·투명한 기업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로서 모국-거주국-재외동포사회 간 동반 성장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선도

II. 혁신 전략체계

1 2021 혁신위원회 주요 의견

구성원 혁신 역량 제고	•(A위원) 조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스스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 •(C위원) 혁신 서포터즈 등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D위원) 위에서 끌고가는 혁신 보다는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혁신이 요구됨
지역상생	•(A위원)제주도 추진 재외동포 사업에 재단이 협업하는 등의 형식으로 협력체계 구축 필요 •(C위원)재단 고유의 특성에 맞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이 필요
신기술 접목	•(E위원)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에 '메타버스' 기술 접목 등 비대면 온라인 신규사업 개발 필요
소외동포 지원	•(B위원) 기존 재단 네트워크 및 모국방문 사업 연계, 취약동포 상생사업 지속 필요

2 혁신 전략체계

설립 목적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비전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핵심 가치	정체성 함양	역량 강화	상생발전	사회적 가치실현
전략 목표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및 인재육성	재외동포사회 역량강화 및 거주국 내 재외동포 위상 제고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 증진	사회적 가치실현
전략 과제	①한글학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②특수지 민족교육 활성화 ③차세대 인재육성 확대 및 내실화	④재외동포사회 권익 신장 및 공공외교 활동지원 강화 ⑤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⑥소외동포 지원 강화	⑦한민족 경제교류 협력 강화 ⑧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심화, 국민적 공감대 제고 ⑨디지털 기반 쌍방향 교류 활성화	⑩인권·안전·윤리 경영확산 ⑪ESG 중심 경영체계 구축 ⑫소통협력 기반 경영혁신

분야	정부정책	내부 프로세스	정책대상자
혁신 방향	공공부문 생산성·효율성·투명성 제고	경영혁신, 경영개선	모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

혁신 과제 (12개)	①기관의 핵심기능을 재분석하여 조직인력 효율적 배치 ②재무예산관리 강화로 재무 건전성 지속 확보 ③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 조직운영 확산 ④기관 경영투명성 강화	⑤기관 혁신 전략체계 재정비 ⑥소통·협력 기반의 경영혁신 ⑦조직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 혁신위원 의견 반영 ⑧ESG경영 대내 공감대 및 신뢰 형성	⑨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⑩디지털 기반 쌍방향 교류 활성화 혁신위원 의견 반영 ⑪지역상생 프로젝트 발굴 혁신위원 의견 반영 ⑫소외동포 지원 내실화 혁신위원 의견 반영
-------------	---	---	---

성과 관리	모니터링	성과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 5대분야 중점 혁신TF, 사업부서 혁신 담당자 (대외) 혁신위원회, 제주 혁신 네트워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 포상) 특별승진, 포상금 지급 등 (평가) 혁신 활동 시 내부평가 가점 부여, 개인업무성과보고서 제도 신설

III. 2022년 혁신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1. 기관의 핵심기능을 재분석하여 조직인력 효율적 배치

1-1. 재외동포재단법 기본으로 기관의 핵심기능 재분석

- 재외동포재단법 내 명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제1조)’ 및 ‘사업(제7조)’ 을 기본으로 기관의 핵심기능 구분
 - 설립목적: ①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②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 고유사업: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전 직원 대상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추진 대비, 사업집행(구현)기관 입장에서의 동포업무 관련 의견 수렴
- 해외직무파견 기능 재분석 및 지역별 맞춤형 핵심기능 강화

1-2. 경영관리부문 기능 등 비핵심 기능 축소

- 새정부 인력 효율화 방향에 맞춰, 성과관리(경영평가 등), 회계 등 경영관리부문 기능 축소
 - 성과관리 인력(상위직 3급→하위직 5급 재배치), 회계 인력 감축(총 3명△)
- 외부 자문 위원 축소 및 관련 규정 개정
 - 자문위원 감축, 국정과제 이행 위주 자문역할 수행(前 8,9기 25명 → 現 10기 20명 → 11기 15~18명)
 - 공석 상태인 “고문” 규정(보수, 수당 관련 사항 등 포함) 삭제

1-3. 재단 전략체계 개편방향, 재외동포청 전환에 따른 확대기능 등을 고려

한 조직·인력 재편

- 재외동포청 설치 등 국정과제(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청’ 조직에 적합한 대부서화

국정과제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 대부서화를 통한 관리인력 축소와 부서별 기본 행정업무 기능 통합 등으로 감축된 인력, 기관의 핵심 기능 및 국정과제 수행에 재배치
 - (기존) 2실 8부 1추진단 → (개선) 3실 4부 1추진단

2. 재무예산관리 강화로 재무건전성 지속 확보

2-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외교부 소관 재정사업 중 평가점수 최고점

- 코로나19 악조건에서도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가점을 획득하여 외교부 소관의 재정사업 34개 중 가장 높은 102.4점의 점수를 기록

2-2. 동포단체 지원사업 제도 개선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구분	기존	개선	성과
수요조사 및 지원금 송금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말~차년도1월) 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차년도 2~3월) 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및 지원금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12월) 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차년도 1월)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금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규모를 조기에 결정,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연초 개최예정인 동포사회행사의 원활한 추진 지원
지원금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 된 후 60일 이내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 된 후 30일 이내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결과보고서 조기 취합으로 재단 지원금에 대한 사후 심사 강화

2-3. 경상경비 절감 증장기 계획 수립 및 노력

- '22년 경상경비 예산 중 80% 상당이 고정성 경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 30백만원 절감
- '23년 경상경비, 새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3%이상 감축예정
-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향후 5년 간 감축 효과: 76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가이드라인 적용 前*	2,121 (A)	2,168 (C)	2,216 (E)	2,265 (F)	2,315 (G)	11,085 (H)
가이드라인 적용 後	2,091 (B)		2,057 (D)	2,057 (D)	2,057 (D)	10,319 (I)
절감효과	30	111	159	208	258	766

2-4.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 제고로 재단 직원의 근로 안전성 확보

- 효율적인 결산잉여금 사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 제고
- * '21년 55.3% → '22년 90% 상당

2-5.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사업 불용액 최소화 노력

- 사업조정위원회(5회, 전년대비 40%↑), 예산관리위원회(7회) 활성화로 폐지·신규사업 등 예산 조정 필요 사업 즉각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예산 재배치

3.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 조직운영 확산

3-1. 인사평가 및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평가제도 활용

- 내부평가편람 개편으로 평가도구 고도화('22. 12.)
 - 직원 수용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시행
- 다면평가 정식 도입('22. 12.)
 - 2회('22. 1월, 7월)에 걸친 다면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점 도출→ 다면평가 및 역량평가의 평가역량을 일치시켜 평가의 일관성 확보
- 승진후보자 대상 역량평가(AC평가) 최초 도입('22. 8.)
 - 리더(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 인사체계 확립
 - 시범운영 및 결과 피드백('22. 8.)을 통해 승진 참고자료로 활용

3-2. 직급대우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직무중심 조직관리체계 구축

- 재단 주요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4~5급 직원에 대한 역할 부여
 - '21년 직무평가 결과, '가' 등급 및 '나' 등급 업무의 90%를 4~5급 직원이 담당

구분	가등급(현 담당직원 직급)	나등급(현 담당직원 직급)
경영관리	예산(4급, 5급)	경영기획(5급)
	센터건립(3급, 5급)	인사노무(4급, 5급)
		성과관리(5급)
사업관리	한글학교 육성(3급, 4급)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4급)
	세계한상대회(4급, 5급)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3급, 5급)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5급)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4급)

4. 기관 경영투명성 강화

4-1. 경영공시 우수기관 선정

- 허위공시, 지연공시 등 불성실 공시 내역이 없는 무벌점을 기록, 우수 공시기관 35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외교부 산하기관 중 유일)
 - ※ 기획재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공시내용에 대한 정확성, 적시성을 점검하고 있음. '21년에는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3개 항목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통합공시 점검을 하였음.

4-2. 사업실명제 내실화

- 인사 이동 등에 따른 사업실명제 현행화 수시 시행으로 재단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21년 1회 → '22년 4회(전년대비 4배↑)

4-3. 윤리경영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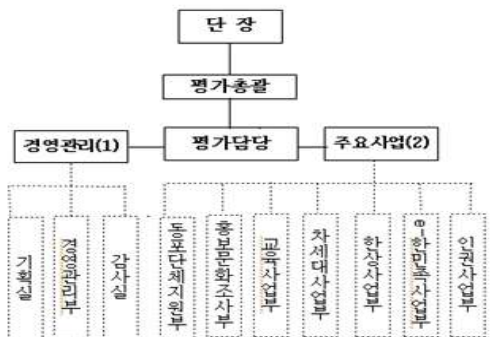

- 재단의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자체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및 국가청렴위원회(現국민권익위원

- 회)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관련 항목을 재단 실정에 맞게 구성
- 8가지 구분에 따라 14가지 항목으로 구성(주기적 업데이트 예정)

5. 기관 혁신 전략체계 재정비

5-1. 혁신 투트랙(경영관리부문, 주요사업부문) 체계 구축

- (경영관리) 기획이사를 팀장으로 하는 5대분야 중심의 ‘혁신 T/F’ 구성
 -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대응, 기존에 통합되어 있던 성과관리, 혁신 기능을 분리 → ‘혁신’에 중점

구 분	기 존	개 선
조직명	미래혁신 TF	혁신 TF / 성과관리위원회
구 성	<p>• 기획·경영분과, 사업분과 운영(단원 총 4명)</p> 	<p>• (혁신TF) 혁신 5대분야 담당 부서장실무자로 구성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p> <p>• (성과관리위원회) 각 부서의 부서장 및 평가실무자</p> 

- (주요사업) 부서별 혁신업무 담당자 지정
 -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직 내부 혁신 역량 강화

5-2. 기능, 조직·인력 등 5대분야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이행

- (기능, 조직·인력) 핵심 기능 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부서화 추진
- (예산) '22년 경상경비 30백만원 절감, '23년 경상경비 새정부 권 고수준(3%이상)으로 절감예정
- (자산) 이주직원용 숙소(11호실 1채) '26년에 매각
- (복리후생) 창립기념일, 정산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23년~)

6. 소통협력 기반의 경영혁신

6-1.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 임직원 소통프로그램 및 부서별 해피아워 확대 시행
- 신입직원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 시행(웰컴키트 제공, 제주 지역 현장견학 실시 등)
-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시행
- 카카오프랫폼을 활용한 통합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 기관 메신저를 통한 이사장 소통 메시지 전달
- 외부 전문역량 네트워크(유관기관 실무협의, 노무법인 외부자문)을 통해 조직 관리 역량 강화
- 주요 현안 사항(평가제도 등)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과정
-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친화경영으로 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
 -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통과('22. 12.)
 - 복무규정, 유연근무제 운영 편람 개정으로 제도 개선('22. 12.)

6-2. 기록물 관리 업무 프로세스 혁신

- (개선사항) 대외비 관리 및 활용개선
 - 종이기록물 기반의 대외비 유통과정 최소화

기존방안	외교부 문서수령	▶	서울사무소 제주발송	▶	제주본사 대외비 등록 대외비 발송	▶	서울사무소 실무자 전달
개선방안	외교부 문서수령	▶	서울사무소 대외비 등록	▶	서울사무소 실무자 전달		

- 서울사무소 대외비 관리절차 수립 및 환경개선
- (개선효과) △대외비 유통 소요시간 단축, △ 정보통신망 공유로 인한 보안문제 발생 가능성 차단, △ 대외비 관리통제 강화

7. 조직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

7-1. 인적자원개발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

- 신입직원 및 청년인턴의 소속감·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입문교육 확대 운영('22. 5.~8.)
 - 신입직원 OJT를 4개 카테고리(조직이해/직무기초/기본소양 및 공직 가치(ESG경영 내재화 포함)/재외동포 및 제주지역의 이해)로 운영하여 전년대비 교육 고도화
 - 체험형 청년인턴 대상 OJT 운영으로 조직이해 향상 및 일자리경험 제공
- 북러닝 확대 시행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22. 9.~)
 - 자기주도형 학습인 북러닝 교육을 통해 사고와 지식을 확장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습득
- 나라배움터 신규 도입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이러닝 강화('22. 3.)
 - 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한 재단 맞춤형 역량개발 과정 운영
 - ESG/메타버스/디지털리터러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최신과정 반영
- 안전·보건 중요성 확대에 따라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지속 및 확대 실시
 - 서귀포보건소 협조 건강한 직장 만들기 「1:1 상담프로그램」 실시 (4회 시행)
 - 올바른 걷기 실천 교육('22. 8. 16.)
 - 스트레스 관리 교육('22. 10. 18.)
 -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22. 11. 25)
 - 소방교육 및 훈련('22. 10. 14, 11. 22)

7-2.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과제를 대내외 공유·확산

- 재외동포재단 직원, 외교부 주최 「2022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 제안명: 재외동포 가족사 아카이빙 콘텐츠 공모전(내가 기록하는 우리 가족 글로벌 정착기)

8. ESG경영 대내 공감대 및 신뢰형성

8-1. 재외동포재단 ESG경영 비전 및 정의 대내 공유·전파

- OKF ESG경영 비전: 세계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8-2. ESG경영 활성화

- (친환경 경영) 반려해변 정화 봉사활동 및 제주 바다 재료 활용 upcycling 체험, 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석, 에너지의 날 소등운동 동참 및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 (사회적가치 경영) 제주 4.3평화걷기 참석 등 재외동포재단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상생 프로젝트 발굴 및 시행 ※ 상세내용 11번 혁신과제 참조
- (투명한 경영) ESG 경영공시 항목별 담당자 지정 및 적극 관리, 사업실명제 내실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참여

9.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9-1. 재외동포경제인-국내기업 간 교류·협력 플랫폼 구현

- '23년 세계한상대회 해외(미국) 최초 개최 준비
- 재외동포경제인-국내기업 간 온라인 상시 비즈니스를 위한 한상넷 개편

9-2.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개방 확대

- 재외동포 단체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 단체분야 발굴
 - 한인회, 한글학교, 신문/방송/언론, 문화/예술, 경제단체, 차세대/학생회/청년회, 봉사/NGO

9-3.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

-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트 공동 구축
- 물품·용역 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구매 확대
- ‘세종학당재단 미래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 관련 벤치마킹 대상기관으로서 기관 노하우 공유
- 2021 우수공시기관으로서 경영공시 멘토기관으로 선정, ‘제주대학 병원’ 멘토링 시행

10. 디지털 기반 쌍방향 교류 활성화

10-1. 디지털 기반 언택트 사업 내실화

- 상시 비즈니스 채널 마련(한상 비즈니스 플랫폼 및 상반기 기업상담회)
-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연수
- 동포사회와의 실시간 소통 시스템인 ‘찾동’ 지속 시행

10-2. 재단 SNS 및 유튜브채널 콘텐츠 제작·운영(다국어)

- 전 세계 재외동포(차세대) 대상 재단 사업 홍보 및 자체 제작 콘텐츠 확산을 위해 국·영문(SNS) 및 국·러문(유튜브) 병기 운영

11. 지역상생 프로젝트 발굴 및 시행

11-1. 지역사회와의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시행

- OKFriends 봉사단 제주 해녀문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 진행
- 제주 포럼 연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 세미나 개최

11-2. 지역 청년인재 육성 지원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의 제주지역 청년 취업 활성화 연계

- 신입직원 채용 시 이전지역인재 채용 대폭 확대
- 제주대학교 GREAT CAMPUS 참여를 통한 기관 멘토링 실시

11-3. 반려해변 입양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 중문 협재해변 *반려해변 입양
 - 해양관리공단 · 색달마을회 협의를 통한 반려해변 입양 시행
 - 정기 해변정화활동, 기관 협력봉사활동, 태풍피해 복구활동, 해변보호 캠페인 시행 등
- ※반려해변: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입양하여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돌보자는 취지의 제도

12. 소외동포 지원 내실화

12-1.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안정적 현지 정착 지원

- 다문화 취약동포 맞춤형 지원 내실화
 - 한베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 활동
 - 한베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 한베자녀 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지 한글캠프 운영, 한국어 교육 지원 등
 - 베트남 내 코로나19 봉쇄령 해제로 '22년 한글캠프 개최(7.22~24)
 - 88명 참가(한베자녀 46명 외 보호자 등)

12-2. 차세대해외입양동포 지원을 통한 입양단체 역량강화 및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구현

- 해외입양동포의 권익신장 및 교류증진, 입양동포의 미시민권 취득 등 현지 법적지위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지원
 - 입양동포 자생단체, 한인회, 한글학교 및 한인 비영리단체 등 총 9개국, 17개 공관, 40개 단체, 41개 사업, USD208,700 지원
- 해외입양동포 모국초청 사업 시행
 - 2022. 10. 13. ~ 10. 17, 5박 6일, 서울/입양동포 및 동반자 포함 148명
 - 입양 후 첫 모국 방문인 입양동포 및 장애인 우선 초청,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지원

12-3. 국내 거주 동포 100만 명 시대, 국내동포 관련 단체 신규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 동포사회 지원 및 단체 역량 강화

- 국내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확대
 - '22년: 23개 단체, 25개 사업, 241,000천원
 - ※ '21년: 14개 단체, 16개 사업, 219,000천원

12-4. 역사적 특수동포(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등) 지원 확대를 통한 동포사회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하 고려인 동포 피난민 긴급 구호 및 생활안정 목적의 긴급 구호 지원(USD20,000)
- 고려인 권익신장 지원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확대
 - '22년: 8개국, 14개 공관, 48개 단체, 68개 사업, USD365,700
 - ※ '21년: 7개국, 12개 공관, 32개 단체, 48개 사업 USD363,701
-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연말 위문품 전달 지원 확대
 - '22년: 전국 28개소,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3,060명
 - ※ '21년: 전국 29개소,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860명